

미션계 학교가 한중 근대교육에 미친 영향*

李庚子**

<목 차>

1. 머리말
2. 한국 미션계 학교의 수용
 - 2.1 한국 미션계 학교의 수용 배경
 - 2.2 근대화를 향한 미션계 학교의 움직임
3. 중국 미션계 학교의 수용
 - 3.1 중국 미션계 학교의 수용 배경
 - 3.2 근대화를 향한 미션계 학교의 움직임
4. 한중 미션계 학교의 근대교육 영향
 - 4.1 근대학문의 수립
 - 4.2 여자교육의 실시
 - 4.3 성경 번역을 통한 자국어의 보급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과 중국은 오랜 기간 유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장기간 이루어졌던 전통교육이 중국은 아편전쟁(1840-1842), 한국은 강화도조약(1876)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서구의 문화와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서양학문으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서양학문의 접촉은 주로 선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3S1A5A8024760).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교사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겠지만 종교전쟁 이후 유럽에서의 구교세력이 약해지자 아시아에서 그 세력을 회복하고자 했던 유럽 종교계의 움직임은 서구의 동양 접촉에서 엿볼 수 있다. 이들의 아시아 진출 목적이 궁극적으로 선교에 있었다고 하지만 선교를 하기 위한 장소로 미션스쿨을 통해 이들이 펼친 교육은 양국이 전통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 전환하는데 교량역할을 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양국의 근대사는 과거제도의 폐지, 서구 열강의 침입, 서양식 교육제도의 정착, 새로운 정치체제의 시도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되었다. 이 속에서 미션계 학교는 양국의 사회, 문화, 교육 등에서 보다 발전된 이론과 모델을 직·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전파하였다. 과거 한국교육이 중국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음을 부인할 수 없듯이 근대교육에서도 이들 관계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 조선후기 실학운동을 비롯하여 갑신정변, 갑오개혁을 거쳐 학자들이 전통교육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선교사들이 소개하는 서양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국에서의 초기 선교사들은 주로 교육과 의료를 통해 서양의 근대학문을 소개하였다. 이를 위해 미션계 학교를 설립하고, 이러한 미션계 학교는 개인 혹은 정부의 보조 하에 선교, 교육, 의료사업을 전개하였다. 미션계 학교는 이것이 개인에 의해서든 정부에 의해서든 당시 한국과 중국의 근대학교 및 교육에 앞장섰다. 중국에서는 '근대화'의 물결과 더불어 미션계 학교가 근대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사회주의의 집권체제의 영향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미션계 학교에 대한 관련 연구가 적지 않지만¹⁾

1) 이와 관련하여 공보길(2000), <미국의 초기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활동에 대한 연구-알렌과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명지사론》 12권, 김성은(2010), <미국계 선교사와 일본 근대 지식인의 긴장관계-미션스쿨 교육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第50輯, 김두정(1998), <한말 개화기의 학교 교육과정: 변화, 배경, 현대 교육적 시사점>, 《教育發展論叢》 19권, 김기민·유재봉(1991), <개화기 기독교 학교의 교육사적 의의>, 《창원대논문집》 13, 김기석·유장란(1994), <한국 근대교육의 기원 1880-1895>, 《교육이론》 7,8권 제1호, 신용하(1973),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문학과 지성》 제5권 제1호, 이성전 저,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李萬烈(1993), 《韓國基督教와 歷史意識》, 서울: 지식산업사 등이 있다.

한국과 중국의 상호관계에서 어떻게 근대교육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예를 들어 미션계 학교 및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한 저서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발간되었지만 실제로 이들이 한국의 근대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히 한국에 진출한 중국 선교사들의 활동 그리고 한국과 중국에서의 교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러한 연구의 현실을 볼 때, 미션계 학교가 양국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고, 이들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중 근대교육 및 한중교육사의 발전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중국의 근대 이후는 미션계 학교의 교육을 논하기 쉬운 부분이 아니다. 중국의 현대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연구 범위가 방대하고, 1949년 신중국이 건국되면서 이들에 관한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는 근대로 한정하고 근대이후의 연구는 추후 단편적인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근대교육의 시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조차 다양한 관점과 이론이 존재하지만, 여기에서는 시점 자체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견해를 따르고자 한다. 즉, 한국의 경우는 1880년대부터 1945년 8·15광복까지, 중국의 경우는 아편전쟁이 일어났던 1840년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전까지로 한다. 단 향후 전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후시기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볼 것이다.

2. 한중 미션계 학교의 수용

2.1 한국 미션계 학교의 수용 배경

미션계학교의 수용에 앞서 기독교 수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기독교

의 한국 전파는 중국과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기독교를 수용하기 이전에 근대교육에 있어 선교사들이 이미 아시아로 진출했으며 전통 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 전환된 계기가 선교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전통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의 전환은 정부의 공식적인 문건으로 보았을 때 고종의 교육입국조서(1895) 반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1894년 갑오개혁 뒤 조선정부는 교육을 근대화하려는 목적에서 그해 7월 예부를 폐지하고 근대적인 교육행정기관인 학부아문을 설치하였으며 다음해 2월 이 조서를 발표했다. 이 조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도덕교육에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새롭게 추가하여 교육의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개혁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는 1890년 일본의 메이지 천황이 발표한 '교육에 관한 칙어'와 마찬가지로 봉건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²⁾ 한국교육사에서는 '교육입국조서'로 인해 전통교육 즉 구교육과 신교육을 갈라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고 또한 이만열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의 근대화'라는 것이 일본의 영향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입국조서에서 근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육의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으며 교육의 근대화 움직임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손인수의 견해에 따르면 근대교육을 신교육, 개화교육으로 보고 있다. 즉 종래 한학교육에 대한 학교중심의 교육 또는 舊來의 전통적 유교교육을 불식하고 서구의 신문화를 섭취하려는 교육을 말한다.³⁾ 이에 의하면 근대교육이란 내부적으로 몇 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유교교육을 불식하는 것과 외부적으로 서구의 문화 이른바 교육에 있어 신학문을 받아들인 것을 말한다.

古川 昭는 학교교육의 근대화란 校舎를 건립하고 다수의 학생이 그곳에서 근대적 지식 즉 서양지식을 배우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교를 근대학교라고 부른다고 하였다.⁴⁾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서양의

2) 이만열(2009), 《한국독립운동의 연표》, 서울: 경인문화사, 57-58쪽.

3) 손인수(1998),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219쪽.

4) 古川 昭 著, 李成鈺 譯(2006),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서울: 景仁文化史, 1쪽.

학문을 도입하여 이를 배우는 것을 ‘근대교육’이라고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양지식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개화와 더불어 일어나는 교육계에서의 새로운 움직임도 근대교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양의 학문을 어떻게 도입해서 배운 것인가? 이 부분에서 주로 기여를 한 사람들은 선교사였다. 선교사 이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왔지만 실제로 근대교육에 직접적·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이들의 힘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아편전쟁을 전후로 하여 선교사들을 수용하고 한국에서는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조선이 서양의 여러 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1882년 미국과의 한미통상수호조약(이하 한미조약), 1883년 영국, 독일 그리고 연이어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체결을 맺음으로 선교사들도 대거 들어오고 활동영역도 넓어졌다. 사실 이러한 조약 이전에 이미 선교사들이 국내에 들어오긴 했지만⁵⁾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과 국내 정세로 인해 선교사들의 자유는 억압되거나 금지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에 미션계 학교가 어떠한 배경에서 수용되었는가?

첫째, 기독교의 도입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이 기독교에 대하여 소극적이거나 문호를 개방하게 된 것은 강화도조약과 한미조약 이후의 서구 열강과의 조약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미조약 이후 선교사의 입국이 허용되면서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을 통한 간접선교를 기반으로 하여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하여 조선에 입국하였다. 교육을 위해 파송된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는 1885년 4월 입국하여 교육사업의 계기를 찾았다. 감리교 선교부에서는 고종이 윤택한 교육사업과 의료사업을 위하여 아펜젤러와 스크랜톤(William B. Scranton)을 파견하였으며 감리교 여성 선교부에서는 스크랜톤 여사를 파견하였다.⁶⁾ 이것은 한미조약에 따라 주한 미국 초대공

5) 1880년대 중반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소규모의 개신교 집단이 조선의 변경지대에 존재하고 있었다. 1830년대 이후 ‘은둔의 왕국’으로 들어오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귀츨라프(Karl F. A. Gutzlaff, 1803-1851)는 1832년에 답사를 겸해서 만주와 조선의 서해안을 여행하였다. 그는 소수의 천주교인들과 접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임스 허틀리 그레이슨 지음, 강돈구 옮김(1995), 《한국종교사》, 서울: 민족사, 245쪽.

사 푸트(Lucius H. Foote)의 내한이 1883년 4월에 이루어졌다. 이듬해(1884) 9월에 공사관 공의(公醫)의 자격으로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이 내한하였으며, 1885년 4월에 가서 이 땅에 처음으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아펜젤러 등의 선교사를 맞이함에서 발생한 것이다. 특히 1887년부터 효력이 발생된 한불조약의 <敎誨> 두 자의 삽입은 한국에서의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⁷⁾

이만규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의 도입을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는 서적으로만 수입한 때, 제2기는 천주교 선교사가 들어온 때로 이 시기는 신유박해, 을해박해(1815), 정해박해(1827), 기해박해(1839)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천주교의 지속적인 탄압이 있었다.⁸⁾ 제3기는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때이다. 이 시기는 북장로회가 처음 들어온 시기에서부터 개신교가 계속하여 들어온 기간으로 1884년에서 1910년까지 약 25년-26년으로 잡을 수 있다.⁹⁾ 정부가 외부적으로 각국과 조약을 맺고 종교의 자유를 준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개신교의 각 교파가 차례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6) 류방란(1998),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 운영>, 《教育史學研究》 第8輯, 168쪽.

7) <柳洪烈, 高宗治下 西學受亂의 연구> 366쪽, 李萬烈(1993), 앞의 책, 11쪽에서 재인용.

8) 이러한 천주교가 학살 아래에서도 한국에서 성장한 이유에 대해 이만규는 첫째, 조선의 옛 교육이 민중과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식하였다. 둘째, 조선의 옛 교육은 계급적 전제의 도덕을 기른 교육이었다. 그 밑에서 신음하던 대중에게 평등과 자유는 신의 사랑이며 도의 진리라는 것을 힘 있게 들려주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셋째, 조선의 옛 교육은 생계를 등한시하였고 더욱이 빈민을 구제하거나 그들을 잘살게 하겠다는 사회적 의식은 조금도 가르친 일이 없어 식자와 빈민 사이에 안정적 유대가 없는 사회가 되었다. 넷째, 조선의 옛 교육이 사대사상을 키웠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만규(2010),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서울: 살림터, 389-390쪽, 즉 당시 조선후기의 불평등한 사회상황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평등, 자유, 사랑 등의 교리가 민중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9) 이만규(2010), 앞의 책, 384-393쪽 참조.

<표 1> 개신교가 들어온 시기¹⁰⁾

년도	교파	처음 온 선교사
1883	미국 북감리회	맥클레이(Robert S. Maclay)
1884	미국 북감리회	알렌(Horace Newton Allen)
1885	미국 북감리회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1885	미국 북감리회	아펜젤러(Henry Gerhard Appenzeller)
1889	오스트리아 장로회	데이비드(Hill David)
1890	캐나다장로회	맥켄지((W. J. Mackenzie)
1892	미국 남장로회	7명
1895	미국 남감리회	리드(Clarens F. Reid)
1904	미국 안식교회	-
1907	미국 동양선교회	-
1907	영국 구세군	호가드(Colonel R. Hoggard)

한국에 입국한 선교사들은 초기에 주로 의료와 교육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했는데, 이는 선교사들의 한국 진출 초기에 정부가 선교활동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맞서 선교사들은 선교에 초점을 두기보다 의료활동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통해 선교활동을 하였다.

둘째, 민족구국 차원에서 미선계 학교의 도입이다. 기독교는 한국이 대외적으로 자주외교의 시련기에 대내적으로 봉건사회의 개혁이 요청되던 시기에 전래되었다.¹¹⁾ 이성전은 조선의 기독교 및 기독교 학교는 시작 단계부터 민족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한 민족적 성격은 일본의 간섭으로 인해 오히려 더욱 강화되었다. 통감부 시절에는 사실상 국권을 상실하면서 애국계몽운동, 국권회복운동이라는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미선계 학교는 선교의 일환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교육 내용에 포함된 근대적 성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근대적 성격이 개화파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근대적 주체 형성에도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¹²⁾ 이러한 사실은 이만열

10) 이만규(2010), 앞의 책, 391쪽 참조하여 일부 수정·보완함.

11) 李萬烈(1993), 앞의 책, 230쪽.

의 주장과도 일부 일치한다.

기독교는 서구의 제국주의적 세력과 함께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전파된 지역은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에 의하여 식민지로 전락되었지만 한국은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유럽이나 미국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여기서 기독교는 한국의 항일민족주의와 연결된다.¹³⁾ 이만열은 기독교인들은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완강한 저항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국어 수호를 위한 이운재, 최현배, 김윤경, 장지영 등과 국사 수호를 위한 남궁억, 안재홍이 나오고 신사참배 거부의 주기철, 한상동 등의 맹장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민족운동을 기독교 신앙과 일치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¹⁴⁾ 일본은 조선의 민족주의와 기독교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여 기독교를 탄압하였다. 사립학교 규칙에서는 총독부가 학교의 설립, 폐쇄 등 학교의 업무에 관한 대부분의 일을 총독부의 관할 아래 두고 이를 통제하였다.¹⁵⁾ 이처럼 나라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기독교와 미션계 학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셋째, 전통사상에 대한 비판과 개화사상의 움직임에 의한 미션스쿨의 등장이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영향이 강하여 유교의 경전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과거제도의 시험이 주로 유교경전에서 출제되어 유교경전 중심의

12) 이성전 저,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24쪽.

13)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 왔던 시기는 한국이 대내적으로는 봉건적인 사회의 부패를 개혁해야 할 중요한 때였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세력이 침투하고 있던 때여서 국가의 자주독립이 무엇보다 심각하게 요청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천주교의 포교를 그렇게도 엄금하던 조선의 지배층은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한국의 개화와 자주독립을 위해서 기독교와 손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하였다. 이만규(2010), 앞의 책, 281쪽.

14) 李萬烈(1993), 앞의 책, 274쪽.

15) <개정사립학교규칙>에서는 이를 더욱 강화하고 미션스쿨에서의 성경과목과 종교의식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덧붙여서 미션스쿨을 더욱 탄압하였다. 그러자 감리교 학교들은(배재학당, 이화학당, 광성학교, 정의 등) 일제의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감리교 선교부는 정규 교과과정에서 성경과 체플 예배종교를 포기하고 이를 '과외활동'으로 해도 좋다는 총독부의 양해 아래 학교를 계속 유지시키기로 하였다. 변창욱(2015), <내한 선교사의 교육선교(1884-1940): 한국교회의 교육선교에 주는 선교적 함의>, 《선교와 신학》 36집, 147쪽.

교육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교육은 조선 후기의 정약용, 박지원 등과 같은 실학자들에 의해 과거시험의 폐단과 더불어 교육 내용의 비현실성이 지적되었다. 교육 내용 면에서도 지나친 중국 중심의 사관, 현실과 결여된 교육방법 등 실제 생활과 괴리된 문제점들이 속속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선교사들의 새로운 사상과 학문이 지식층 및 일반 백성에게 전파되었으며 이는 당시 조선이 처해진 상황과 아울러 민중으로 전파되었다. 기독교 전파 초기에 입교한 이유에는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입교의 사회적 동기가 있다. 지배계층의 지도자들은 개화와 구국을 목적으로 일반 민중들은 지배층의 가렴주구와 관리들의 탐학을 피하는 수단으로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이들 두 계층이 가졌던 입교 동기는 당시 우리나라의 개화의식 및 반봉건의식과 상통하는 것으로 양사는 표리의 관계를 가지고 한국의 근대의식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2.2 근대화를 향한 한국 미션계 학교의 움직임

2.2.1 성서의 한글 번역

초기 선교사들이 교육과 의료사업을 중심을 선교활동을 했는데 그 대상은 주로 서민들이었다. 이는 유교와 전통 문화의식이 강한 기득권층이 외래문화 수용을 대체로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서민들은 생활고와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선교사들의 헌신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선교사들이 민중에게 접근하는데 있어 큰 난관이 이어졌다. 즉 그동안 양반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서민들의 문맹률이 선교를 위한 큰 걸림돌이 되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은 한편으로 민중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게 선교를 위해 성서를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매개로 민중에게 접근하였다. 이들은 교세확장을 위한 목적이 있었으나 기독교

의 평등사상과 인도주의적 정신을 당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과 서구문물의 전파를 통해 기독교 문화를 전수하고자 하였다.

선교사가 들어온 후 성경책과 기독교 문서의 배포를 위하여 종교문서회(Religious Tract Society)가 창립되었고 최초의 서구식 출판사인 삼문출판사가 설립되었다. 선교사들이 도착한 2년 뒤인 1887년에는 방언 투성이의 로스번역본을 대체할 성경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 성서번역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였다.¹⁶⁾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이미 만주와 일본에서 성서가 한글로 번역되었다. 이만열은 이러한 성서의 출판과 보급이 한글의 가치를 재인식하는데 많이 공헌하였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한글을 대중화시켰던 이러한 작업은 한국 사회에서 문맹을 퇴치하고 개화를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인데, 이는 선교사들과 교회는 말씀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성서를 보급하여야 했고 성서의 보급을 위해서는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¹⁷⁾ 성경의 번역, 출판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언문서책이 나와 유동하는 언어를 한글로 잡아서 표기화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한 종교의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었다는 것은 우선 언어상 중요한 의미를 남겼다고 생각된다. '성경번역'운동은 한국의 언어를 한국의 문자로 정착시키는 데에 공헌한 것으로 루터(Martin Luther)의 성경 번역이 독일어에 미친 영향과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평민이 사용하는 언어를 서민이 이해하는 문자로 붙잡았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렇게 언어와 문자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 한글 성경의 번역 출판은 기독교의 경전이 갖는 무게만큼 한국의 중세봉건적인 사상을 변화시키는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다.¹⁸⁾ 이처럼 성경의 한글번역과 서적의 출판은 한글의 대중화 및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데 기여하였다.

근대화의 전파와 한글을 통한 교육의 변화는 당시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불

16) 제임스 허틀리 그레이슨 지음, 강돈구 옮김(1995), 앞의 책, 248쪽.

17) 李萬烈(1993), 앞의 책, 20쪽.

18) 이만열(2013), <한국어 성경 번역의 초기 역사와 한국 교회>, 《長老教會와 神學》 10, 23쪽.

때 전통보다는 서구의 학문을 갈구하게 하였다. 미션계 학교로써 당시 대표적인 여학교였던 이화학당과 정신여학교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언문이라는 과목을 찾을 수 있다. 미션스쿨에서 한글을 가르친 사람들도 조선인들이었다. 이화학당에서는 1889년 이경숙이라는 최초의 한국인 교사를 채용하여 한글 읽기와 쓰기를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 또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도 “학당 선생은 작년부터 안정수씨가 영어와 한문과 국문과 여러 가지 학문을 가르치더니”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 기사 속 ‘학당’은 제물포교회가 운영하던 학당이다.¹⁹⁾ 선교사들이 성경의 한글 번역을 통해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이 선교에 두었다고 하지만 이를 통해 한국에서 그동안 중시되지 않았던 한자에서 한글로의 교육이 이어지고 양반에서 서민에 이르는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2.2 교육을 통한 서양학문의 소개

미션스쿨이 등장하기 전에 대부분 유교 경학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그러면서 한미조약이 맺어지고, 이어서 1886년 6월에 육영공원이 설립되었고, 점차 선교사가 운영하는 미션계 학교가 등장했다. 일반적으로 1895년 2월 2일 교육입국조서를 선포한 이후에 미션스쿨이 본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물론 시작은 이보다 더 앞선 1886년에 시작되었다. 1885년에는 감리교 아펜젤러(H. G. Appenzeller), 장로교의 언더우드(H. G. Underwood)가 입국하여 가장 먼저 교육사업에 착수했다. 아펜젤러는 1885년 8월에 영어교육 학교 개설을 요청하여 학교설립이 공인되었다. 1887년에 이 감리교 교육기관에 주어진 편액에는 고종의 생각대로 인재 육성을 뜻하는 培材學堂이라고 적혀 있었다. 배재학당은 정부의 통역자 등 관료 양성 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²⁰⁾ 당시 조선 정부가 배재학당에 위탁한 것은 영어 교육이었다. 물론 배재

19) 박연호·김근영(2015),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 1884-1905>, 《教育史學研究》 제25집 제2호, 105쪽.

20) 이성전,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앞의 책, 184쪽.

학당과 체결한 계약서에는 영어 외에 다른 교과교육, 지리, 산학, 화학, 의학 등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영어교습을 위하여 정부에서 보내는 학생수 만큼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였을 뿐이었다. 1894년부터 설치한 한문과 학생을 위한 재정지원은 없었다.²¹⁾

미션계 학교는 점차 다양하고 세분화된 과목을 가르쳤다. 물론 학교간 교과목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모두 한문과 같은 동양적 윤리를 강조하는 과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서구의 근대적 교과목인 영어와 화학과 같은 과목도 편성되어 있었다. 더불어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던 국어과 음악, 체육과 같은 과목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최초의 미션스쿨인 배재학당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당시 서양의 학문을 전파하고 백성들의 관심을 끌만한 과목들인 영어, 산술, 기하, 과학, 지리, 역사 등이었다. 또한 1908년에 정부에 의해 조선 최초의 4년제 대학인 '연합숭실대학'이 인가를 얻었다. 초기의 커리큘럼은 성서, 수학, 물리, 자연과학, 역사학, 인문과학, 어학, 변론, 음악 등으로 되어 있었고, 1915년에는 재학생이 180명을 넘을 정도로 성장하였다.²²⁾

일제에 의해 국권을 빼앗기고 난 뒤, 미션계 학교에서 강의하는 교과목의 내용에 변화가 생겼다. 1915년의 '개정사립학교 규칙'에는 기독교학교로 하여금 정규교과목으로서 성경과목이나 채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과외 형태의 종교활동은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총독부의 교육정책은 기독교 학교의 정신을 말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숭실을 맡아 운영해 온 선교사들은 기독교 교육의 말살과 일본제국 신민의 철저한 양성이라는 조선 총독부의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대항하였다.²³⁾ 이처럼 한반도에서 근대화 교육의 의미는 신학문의 보급과 더불어 일본침략으로부터의 저항과 국권회복에도 의미가 크다.

21) 류방란(1998), 앞의 논문, 179쪽.

22)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1997), 《숭실대학교 100년사 제1권》, 서울: 숭실대학교, 147-149쪽에서 재인용.

23) 김영한(1998), <숭실의 1세기와 2세기>, 《기독교와 한국사회》 6권, 240쪽.

3. 중국 미션계 학교의 수용

3.1 중국 미션계 학교의 수용 배경

중국에서 미션계 학교의 수용은 기독교의 전래와 함께 한다. 중국에 기독교가 네스토리우스교(Nestorianism)라는 이름으로 당대에 전래된 이후 16세기에 이르러 마테오리치(Matto Ricci, 1552-1610)가 天竺僧人이라는 이름으로 廣東에 도착한 이후 《天主實義》를 집필하여 이를 중국인에게 전파함으로써 천주교는 빠르게 교세를 확장하였다. 이후 중국의 문호개방과 함께 19세기에 신교가 중국에 들어오면서 교리뿐만 아니라 서양의 다양한 사상도 전해졌다.²⁴⁾ 기독교의 수용, 특히 신교의 수용은 미션스쿨의 확장과 기독교 사상 및 서양의 근대학문이 전파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기독교는 보급되고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유교문화와 크게 충돌했기 때문에 미션스쿨도 중국인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당시 중국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서양문물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인들의 반발심을 샀던 서양문물이 결국에는 대부분 기독교와 연관되어 있었다. 게다가 미션계 학교와 선교사는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기관'이었지만 이러한 학교와 이곳의 교사들은 중국인의 배척을 받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선교사의 선교사업은 단순한 문화충돌이 아니라 침략 성질을 갖고 있어 중국의 사대부나 관리들의 불만을 초래하여 이들이 선교활동 자체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졌다. 또한 중국 사회의 전통적인 미신 관념과 습속 아래 사대부와 관리들은 현실적인 이익과 지위,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기독교의 포교로 크게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유가전통의 華夷之變, 人獸之變의 관념과 기독교의 만남이 교안을 일으키는 중요 원인이 되었다.²⁵⁾ 이러한 미션스쿨

24) 이경자(2014), <중국 미션계 학교의 발전 과정>, 《中國學論叢》 第45輯, 117-118쪽.

의 등장에 대한 중국 내부의 반감에도 불구하고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 및 중국이 처한 상황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중국의 내부 상황을 보면 외부에 의한 아편전쟁과 내부적으로 전통교육에 대한 회의 및 비판과 더불어 양파들의 영향 등은 기독교 사상보다 선교사들이 소개하는 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를 통해 당시 중국이 처한 상황에서 무엇인가 변화를 추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당시 미선계 학교의 수용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인한 미선계 학교의 수용이다. 기독교는 아시아에 제국주의적 세력과 함께 그 기반을 공고하게 확장할 수 있었다. 특히 아편전쟁 후 서구열강과의 잇따른 조약으로 신교의 전교활동도 특권을 갖게 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선교활동 역시 활발해졌다. 불평등조약으로 각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와 선교사의 수가 갑자기 증가하였다. 1858년에 81명에 불과한 선교사 수가, 1889년에 1296명으로 증가하였다. 그중 대다수가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였다. 이들은 41개 종파를 대표하였다. 그 이후 신교의 주요 종파가 각 각 중국의 내지로 들어와 西藏 외의 중국의 각 성에 보급되었다.²⁶⁾ 또한 천진조약을 체결한 다음 개신교의 각 교파들이 선교사를 파견하여 선교사와 교회의 수가 크게 늘어나 광서 32년(1906)에 전국의 82개의 조직과 3832명의 선교사가 있었다. 이처럼 개신교 선교사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천주교도 중국 선교에 적극 나서게 되었다.²⁷⁾ 선교사의 증가는 미선계 학교의 토대를 다지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1894년 청일전쟁의 패배는 제국주의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康有爲와 梁啓超가 이끈 유신변법운동의 실패, 서양의 귀신을 몰아내고 청조를 지키자는 1899년에서 1900년까지 진행된 의화단 운동 등이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 속에 미선계학교에 대한 반발과 그 폐해가 발생하였지만, 미선계 학교는 서구 열강의 비호 속에 발전할 수 있었다. 張永廣은 중국의 미선계 학교는 이상하게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어 비교적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25) 辛勝夏(2004a), 《근대중국: 개혁과 혁명(上)》, 서울: 大明出版社, 327쪽.

26) 修洵(1999), 《基督教與北京教堂文化》,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74쪽.

27) 辛勝夏(2004a), 앞의 책, 320쪽.

미션계 학교는 1890년에 비해 약 10배가 증가하였다. 1920년에 이르러 학생 수가 크게 발전한 동시에 기독교 교육도 소학, 중학, 대학이라는 단계로 체계화되었다.²⁸⁾

둘째, 전통교육에 대한 비판이다. 미션스쿨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중국은 明代의 제도를 이어받아 국가감을 세웠는데, 이는 당시 최고학부였다. 국가감은 率性, 修道, 誠心, 正義, 崇志, 廣業 육당을 두고 4개의 학관 算學, 俄羅斯學, 琉球學, 八旗官學으로 구성되었다. 육당과 각 학당의 교학내용은 서로 달랐다. 육당의 교학내용은 四書, 五經, 性理, 通鑑 등의 책 및 팔고문으로 학생의 능력에 따라 13경과 24사를 더 배우기도 하였다.²⁹⁾ 그런데 이러한 학문은 결국 과거제도를 중심으로 한 유가 경전의 학습과 팔고문의 속박 속에 학문과 교육은 시험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었다.

셋째, 양무파들의 서학 강조이다. 1861년부터 1894년까지 일어난 양무운동은 미션계 학교의 수용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양무파들은 서학을 배울 것을 강조하면서 ‘중학을 중심으로 서학을 채용할 것(中學爲本, 西學爲用)’을 제창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중국 지식층에 전통문화에 대해 반성을 하도록 하고 서학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으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미션학교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하였다.³⁰⁾

선교사 및 각 국가의 중국 진출로 중국은 서양문화와 교류하면서 내부적으로 중국 전통교육에 대한 비판정신과 서양학문 특히 과학기술과 새로운 무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내란 및 혼란에 빠졌던 국가를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것이 서양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사회적 동요가 일어났다. 특히 청말 인재선발에 있어 13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과거제도의 폐단을 지적하며 실용적인 학문을 강조했는데 과거제도의 폐지는 중국 교육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8) 張永廣(2012), 《近代中日基督教教育比較研究(1860-1950)》, 上海: 上海社會科學出版社, 174-175쪽.

29) 熊明安, 熊煥(2013), 《中國古代教學活動簡史》, 重慶: 重慶出版社, 304쪽.

30) 이경자(2014), 앞의 논문, 117-121쪽 참조.

3.2 근대화를 향한 중국 미션계 학교의 움직임

중국에 온 초기 선교사들은 처음에는 중국의 교육기관에서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화를 전파하였다. 이후 선교사들이 직접 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중국에 생긴 최초의 미션계 학교는 1818년 영국 선교사 모리슨(馬禮遜, Robert Morrison, 1782-1834)이 말라카(馬六甲)에 세운 英華書院이다.³¹⁾ 중국의 기독교 배척으로 모리슨은 당시 공개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英國東印度公司의 일을 하면서 선교활동을 했다.³²⁾ 그 후, 영화서원은 1843년에 홍콩으로 이전하여 말라카에서 25년 동안 운영되었다. 영화서원 외에 선교사들은 중국의 남쪽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1834년에는 南陽에 다섯 개의 남학교를 세웠는데 학생수가 200명, 두 곳의 여학교는 학생수가 60명이었다.

1847년 영국장로회 선교사 賓維廉(Burns, William Chalmers)은 중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廈門, 汕頭 등에서 중국 교회의 자립을 제창하였다. 1876년에 이르러 전국의 312개 교회 가운데 완전히 자립한 것이 18개, 부분적으로 자립한 것이 243개였다. 1889년 전국에 모두 교회 522개였는데 완전히 자립하여 설립된 것이 94개, 절반정도 자립을 이룬 것이 22개, 사분의 일정도 자립된 것이 27개였다. 1907년 3차 선교사대회 중 자립상황의 기재를 보면 없다. 그러나 1889년에서 1905년까지 중국 교회의 헌금이 8배에서 9배로 증가하였다.³³⁾

또한 선교사들은 양무운동 기간에 각 교육기관에서 교사로서 언어교육은 물론 자연과학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여 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번역서를 출판하였다. 또한 종교 서적을 비롯하여 각종 서적을 출판하기

31) 馬禮遜은 1807년 중국에 온 영국인 선교사로 중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이다. 그는 주로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가 편찬한 것으로 《使徒行傳》, 《神天聖書》 등이 있다.

32) 이경자(2014), 앞의 논문, 121-122쪽 참조.

33) 何建明(2011), 《近代中國宗教文化史研究(上)》, 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42-143쪽.

위하여 서양의 출판시설을 도입하여 출판사업에도 크게 기여하였다.³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및 서양문화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등에 힘입어 기독교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1906년 기독교 학생수는 모두 57683명 1916년에는 184646명으로 1920년에 245049명으로 증가하였다. 1914년 교회학교는 중국관립학교의 20%, 학생은 6%에 이르렀다. 1918년에는 교회학교는 중국관립학교의 36%를 차지하고 학생은 19%로 증가하였다.³⁵⁾

1900년대에 들어서, 중국 내부에서 세계 각국의 상황과 중국 사회의 변화 등을 전통교육만으로 해결 할 수 없음을 인식하자 서구교육을 수용하고 배우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특히 1900년 의화단 운동이후 신교의 선교활동은 주로 병원,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 기타 문화자선사업에 집중되었다. 1900년 이전 교회에서 설립한 의원은 백여 곳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이 교회 안에 설립되었으며 규모도 크지 않았다. 1900년 이후 많은 의원, 진료소가 건립되고 1937년에 이르러 영미교회에서 설립한 의원이 300여 곳이 되었다. 1900년 이전 교회에서 설립한 대학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저명한 곳으로 蘇州의 東吳대학, 上海 聖約翰대학, 杭州의 之江대학, 成都의 河西協和대학, 武昌의 華中대학, 南京의 金陵대학, 福州華南女子物理學院 등이 있다.³⁶⁾ 그러나 중국은 5.4운동 이후 1922년 비기독교화운동을 시작하여 중국 기독교에 대한 서구화에서 본토화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국주의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국 자신의 교회를 설립하고자 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중국 교회의 종파주의가 지나치게 서구화되어 있어 중국인의 사상과 방법으로 신앙을 해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중국인의 방식과 신분으로 중국에 복음을 해석하고 중국의 상황에 부합한 것을 추구하게 되었다.³⁷⁾

기독교도 중국과 중국인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중국에 안착하기 위하여 변화를 도모하였다. 적어도 세 가지 방면에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34) 辛勝夏(2004a), 앞의 책, 323쪽.

35) 張桂霞(2009), <論近代西方傳教士在華辦學>, 《忻州師範學院學報》 3期, 80쪽.

36) 修洵(1999), 앞의 책, 74쪽.

37) 肖安平(2011), 앞의 논문, 47쪽.

제는 신도들의 중국화이다. 많은 중국인들이 기독교신도로 세례를 받았다. 둘째 교회의 중국화이다. 중국인들이 스스로 조직한 교회조직이다. 이른바 自養, 自治와 自傳—이라는 三自교회이다. 셋째, 종교이론의 중국화이다. 근대기독교는 중국에 와서 초기 중국신도들을 탄생시켰으며 교인들의 중국화를 만들었다. 기독교신학의 중국화는 짧은 시간에 실현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끊임없는 탐색 끝에 이루어졌다.³⁸⁾

4. 한중 미션계 학교의 근대교육 영향

4.1 근대학문의 수립

미션계 학교는 한국과 중국에서 당시 신학문이라 할 수 있는 서양의 학문을 넘나들며 그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다.³⁹⁾ 특히, 선교활동에서 의료와 교육 사업에 치중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교육에서는 자연스럽게 서구의 과학, 의학 등을 중심으로 신학문을 전파하여 한국과 중국의 근대학문의 수립에 기여하였다. 근대 초기 한중 양국이 미션계 학교를 통해 서양의 근대 학문을 받아들이고 이를 전파한 것은 양국의 처해진 상황이 달랐어도 서구문

38) 何建明(2011), 앞의 책, 41쪽.

39) 제2차 아편전쟁이후 서양에 대한 편견이 바뀌기 시작하고 또 조약에 '夷'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때부터 서학이란 말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즉, 양무사상가들의 저서에 서학이란 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1860년, 1870년대까지 서학이란 용어를 완전히 수용한 것은 아니고 다소 경멸적인 뜻을 내포하여 中學의 대칭으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방언으로 보아 동문관, 광방언관으로 불렀던 것도 이러한 심리 속에서 나왔다. 무술변법시기 서학이란 말이 신문과 잡지에 많이 등장하였다. 그리고 일부는 신학이란 이름을 갖고 서양으로부터 온 외래문화를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서학과 신학이 같이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알렌(Yung J. Allen)이 편찬 《新學滙編》이나 리차드티모시(李提麻太, Richard Timothy)의 《칠국신학비요》에서 신학이란 바로 서학을 지칭한 것이다. 즉 중체서용의 개념아래 구학은 체이고 신학은 용인 것이다. 辛勝夏(2004b), 《근대중국: 개혁과 혁명(下)》, 서울: 大明出版社, 2004: 625-626쪽.

명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동경을 비롯하여 중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양 세력의 침략과 지배체제에서 벗어나고 한국은 일본의 지배체제에서 벗어나고 자 했던 것들이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선교사 花之安(E. Faber)이 편찬한 《德國學校論略》, 미국선교사 丁韪良(W. A. P. Martin)이 편찬한 《西學考略》, 영국의 선교사 李提摩太(T. Richard)가 편찬한 《七國新學備要》는 아편전쟁 후 중국에 온 선교사들이 서방교육을 연구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러한 저작은 19세기 후반까지 중국 지식인에게 읽혀졌으며, 청말 교육개혁 및 중국 현대교육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⁴⁰⁾ 서양의학 관련 서적의 전파는 중국현대의학의 발전과 현대의학의 인재배양을 촉진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 중 많은 사람들이 의료산업에 종사했는데 많은 서양의학 서적이 중국에 들어오게 하였다. 중국에서 출현한 최초의 서양의학 문헌은 영국의 의학생 습신이 편역한 것으로 《全體新論》이 있다. 합신은 《西醫大成》, 《藥品中西名目表》 등 30종의 서양의학 관련 서적을 편역하였다. 이 책은 당시 대부분 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조선의 교육은 유학 일변도였을 뿐만 아니라 주자학에 얽매어서 경직되었다. 자연히 근대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서도 저항이 심했고 더구나 새로운 학제로 개편된 것이 1895년이었으니까 구교육에서 신교육으로의 전환도 늦었다. 반면 중국은 동양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 서양의 문물을 빠르게 흡수한 나라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화사상에 입각해서 오랑캐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은 적극적으로 발 빠르게 서양의 선진 문화를 수용하여 자신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생긴 변화를 경험했고 수차례의 전쟁을 통해 확인된 서양의 국력에 의해 서양의 문화와 지식에

40) 화지안은 아편전쟁 후 최초로 중국에 온 선교사 중 한 명이다. 그의 《德國學校論略》은 청말 선교사에 의해 편찬한 서양의 현대교육에 관한 전문저서로 <만국공보>의 전신은 《教會新報》 제1편에 서양의 현대교육을 게재한 전문적인 논문이다. 1873년 《교회신보》에 《덕국학교논략》이 연속 게재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실지는 못하였다. 그 내용의 순서도 없었다. 肖朗, <晚清傳教士對西方教育的論述與中國教育早期現代化>, 《華南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3期. 2005, 97쪽.

대한 태도를 전환하였다. 선교사에 의한 전파로 시작된 서양문물의 수용이 점차 자국민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전환하였다.. 학문도 의학, 과학과 같은 신기술에서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확대되고, 방법도 선교사에게 직접 전해 들던 방식에서 서양 서적의 도입과 번역서의 전파로 신학문을 통한 근대학문의 확장을 마련하였다.

4.2 여자교육의 실시

한국에서 미션계 학교가 여성 교육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남녀평등을 향한 반봉건운동의 확장이기도 하고, 선교 전략이기도 했다. 즉, 가정의 주부가 개화되고 복음에 접하게 될 때 그 자녀들도 복음화될 수 있다는 선교방침이 미션계 학교가 여성교육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된 이유다. 더 나아가 기독교인이 자식의 교육을 잘하는 것이 믿는 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했다.⁴¹⁾ 특히, 선교사들이 보기에 당시 한국의 여성들의 삶은 매우 비참해 보였다. 이러한 여성 선교사들은 자연스레 여성의 교육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한국은 1886년부터 기독교 교육이 시작되어 정부가 근대교육을 착수하기 이전에 선교 거점을 중심으로 한 교육망이 전 국토에 확대되어 있었고 식민지 시기 이전에 여성교육을 포함하여 초등교육으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는 계통 있는 교육을 수립하는 데에 성공하였다.⁴²⁾ 스크랜튼은 열악한 조선의 여성 교육의 환경 속에서 여성을 위한 교육을 시도하였고, 고아와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운영하였다. 1886년 200명 정도의 교사와 35명 정도의 학생으로 근대 여성교육의 첫발을 마련하였고, 이것이 지금의 이화여자

41) 李萬烈(1993), 앞의 책, 234쪽.

42) 일본에서는 1870년에 페리스여학원(Ferris女學院)의 개교를 기독교 학교의 탄생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 해에는 문부성이 개설되어 1872년에는 학제가 정해졌다. 특히 초등교육, 남자교육으로는 국가가 독점하는 상황에 있었고, 기독교 교육은 여성교육 분야에서 그 특색을 보였다. 이성진,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앞의 책, 150쪽.

대학의 효시가 되었다. 이어서 정신여학교는 1887년, 인천에서는 1892년에 영화학당이 개교하였다. 1908년에는 장로교계 개신교 여학교가 정신, 승의, 기전, 정명, 신명, 일신 등 14개교, 감리교계의 개신교 여학교가 이화, 배화, 정의, 영명, 영화, 호수돈 등 16개교로 개신교계 여학교는 30개교로 늘어났다.⁴³⁾

당시 학교의 대표적인 교과목에는 국문, 성경 학습과 역사, 지리, 한문, 산술, 화학, 음악, 체육, 재봉, 요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교과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여성 교육을 통해 신학문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과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에서도 여성 교육은 미선계 학교가 가져온 커다란 변화였다. 중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금해왔던 여성에 대한 교육을 타파함으로써 중국 교육의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었다. 또한 당시 여성을 억압하던 전족 등의 악습이나 봉건예교(封建禮敎) 등에 반대하였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여자학교는 1844년 영국인에 의해 영파(寧波)에 설립된 Aldersay Girls' School이고, 같은 곳 영파에서 김아매(金雅妹)라는 사람이 1881년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1888년 귀국하였는데, 중국 최초의 유학생이다.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여자대학은 1905년에 개교한 華北協和女子大學이고, 1914년에는 華南女子學院, 1915년에는 金陵女子大學, 1919년에는 北京女高師 등이 개교하였다. 그 가운데 金陵女子文理學院과 같은 유명한 교육기관이 있었고, 燕京大學은 중국 현대 교육에서 여자 고등교육과 간호교육에 새장을 열었다. 嶺南大學이나 金陵大學은 남녀학생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국립여자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전공이 대부분 교사와 관련된 것으로 제한되었지만, 여자 교회대학의 경우 전공범위가 매우 다양하여, 졸업 후 여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920년에 교회대학의 여학생이 전국대학의 여학생 가운데 40%를 차지하였고, 1930년에

43) 한국 기독교여성 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 여성분과 편(1985), 《여성, 깎지어라, 일어나라, 노래할지어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14-117쪽.

는 25~30%에 달했다.⁴⁴⁾

미션계 학교를 통한 여성 교육은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중국 여성교육에 대해 관심과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신문화운동과 5·4운동 등의 영향으로 여성의 교육 참여가 넓어졌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19년 4월 자체적으로 북경여자고등사범학교(北京女子高等師範學校)를 설립하였고, 1920년에는 북경대학과 남경고등사범학교에서 여학생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과 중국에 걸쳐 미션계 학교가 미친 커다란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처럼 봉건질서와 전통의 구습에서 피해를 입었던 여성들에 대한 지위 향상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여성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미션계 학교가 근대교육에 미친 큰 영향이었다.

4.3 성경 번역을 통한 자국어의 보급

한국은 한글이 만들어져 반포된 뒤에도 한동안 제대로 사용되지 못했다. 양반층에서는 한자를 사용하는 것이 여전히 자신의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민중에서는 한글을 배우고 익힐만한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글이 대중 속에서 사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⁴⁵⁾ 그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한글이 보급되기까지의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이다.

한국은 민중 속에서 기독교를 전파하고자 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글

44) 潘懋元主編(2005), 《中國高等教育百年》,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278쪽.

45) 한글은 갑오년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신교육제도와 교과용 도서의 출간 보급으로 조금 더 넓게 보급되었다. 정부는 1894년 3월 25일 학부 관제(210)를 제정하여 공포하고 6월 28일 종래의 예조를 폐하고 학무아문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1895년 학부(학무아문의 개칭) 아래 학무국을 두어 각급 학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고, 편집국에서 교과용 도서의 인쇄 번역, 편집, 검정 등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게 했다. 학부의 편집국이 편집한 교과용 도서는 제도화된 전달매체로 종래의 유학서 중심의 내용에서 탈피하여 신지식, 신문물을 습득할 수 있는 최초의 신식 교과서였다. 백종구(2010), <한글 보급과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1603-1910)>, 《성경교회와 신학》 24권, 211쪽.

을 알지 못했기에 먼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여 한글을 깨우치게 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하였다. 구한말, 한국의 개혁정부가 한글 사용을 공용화하였지만 실제 문자생활에서는 한문이나 국한문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반면 천주교는 정부가 한글 사용을 공용화하기 전부터 한문을 모르는 평민들에게 신앙을 전파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한글 교리서, 전례서, 기도서를 제작, 출판하고 1890년대 천주교 성당학교의 한글 교육, 단편 성경의 교과서 사용, 신문의 발간을 통해 한글 보급에 기여하였다. 1880년대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한글 문서, 특히 한글 성경을 통해 신앙을 소개하고 전파하였다. 그리고 1895년 한글전용정책을 채택한 이후 제작 간행하는 모든 문서, 즉 찬송가 교리서, 신문, 잡지 등을 한글로 제작하여 간행하고 배포하였다. 이들 문서 가운데 한글 성경과 찬송가는 일본 식민정부의 한글 제한 교육정책을 피할 수 있어 한글 보급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⁴⁶⁾ 한글 보급에 기독교가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는 것은 과거부터 지적되었던 사실이고, 이광수나 최남선도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며 언급하였다.⁴⁷⁾ 중국 역시 자국의 언어를 일찍부터 갖고 있었지만 한자의 난해함,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부족 등 실제로 문맹국가로서의 부끄러움을 벗어날 수 없었다. 비록 중국에서 초기 선교의 움직임이 상부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성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의 민간 보급에 기여했으며 이는 일정 정도 자국어어를 습득하는데 기여하였다.

1840년 전 중국에 온 선교사들은 중국 법률의 금지조항으로 인해 중국내지까지 선교활동을 할 수 없었고 공개적으로도 선교활동을 할 수 없었다. 청법률의 금지로 인해 그들의 선교활동은 비밀스럽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당시 중국

46) 백중구(2010), 앞의 논문, 228쪽.

47) 이후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연구들이 있었으며 1950-60년대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천주교나 기독교가 한글 보급에 기여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또 1970년 이후 두 교회가 한글 보급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재확인 해주는 연구들이 나왔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중등학교 교과서는 천주교나 기독교가 한글 보급에 기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사회과과서는 처음부터 그리스도교(천주교와 기독교)의 한글 보급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백중구(2010), 앞의 논문, 207쪽.

에서의 선교사들은 주로 기독교교의를 전파하기 위해 주로 저서와 잡지를 발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료의 기재에 의하면 선교사 중 약 10여명이 중문으로 쓴 200종의 서적이 있다. 이러한 서적은 어떤 것은 모두 성경을 번역 해석한 것이며 또 어떤 것은 교리서, 소책자 적은 양이지만 역사, 지리, 의학 서적이 있었다. 1815년 마예손이 말라카에 《察世俗每月統紀傳》이 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주관한 최초의 중문판 간행물이다. 1833년 郭士立, 裨治文은 광주에서 《東西洋考每月統紀傳》을 출판하였다.⁴⁸⁾

중국에서 성경이 번역된 것은 당 나라 때의 경교와 그 뒤의 천주교의 번역이 있었다. 경교와 천주교의 성경 번역에 이어 중국에서 성경 전권을 번역한 것은 1807년 중국에 도착한 모리슨(Robert Morrison)에 의해서다. 모리슨은 1813년에 신약성경 전권을 출판했고 1819년 11월에는 밀른(William Milne)의 구약 번역 도움을 받아 번역을 완성했고 1823년에는 구약성경 전권을 출판했다. 모리슨은 천주교의 역본이 자신의 중국의 번역의 원본이라고 말함으로 중국어 성경전권 최초역본은 천주교 신부들과 신교의 선교사 모리슨, 밀른 등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⁴⁹⁾ 중국은 서적의 번역 및 전파가 기독교의 전파를 국가적 차원에서 금지했던 시기에 공개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통해 기독교의 교리를 전파하고자 내부에서 서적을 출판하고 잡지를 발간하였다.

중국에 온 선교사들은 중국어 보급에 상당히 기여하였다. 언어는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선교사들은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했다. 漢文자전과 서양의 언어로 된 책을 편찬하였다. 1815년 마예손은 영문판의 《漢語語法》을 출판하고 19세기에는 영국의 선교사 麥都思가 아편전쟁 후 《韓英字典》과 《英漢字典》을 출판했으며 미국주중공사 衛三畏가 편찬한 漢語語法書籍으로 《簡易漢語教程》과 《漢語拼音字典》이 있다. 기타 중문어법을 연구한 것이 이다. 이것은 서양인들이 중학을 연구하는데 관심을 갖게

48) 修洵(1999), 앞의 책, 73쪽.

49) 이만열(2013), 앞의 논문, 10쪽에서 재인용.

하였다.⁵⁰⁾ 또한 선교사들은 중국의 문헌을 그들의 언어로 서양에 전했다. 이를 통해 서양은 중국의 문화와 사상을 알 수 있었다.

5. 맺음말

한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인접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수용 양상은 두 나라가 처한 국내외적 상황에 의해 서로 달랐고 이것은 두 나라가 유교중심교육에서 벗어나 근대교육으로 전환하는데 각각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오늘날 한국은 민주주의 체제 아래 미국식 교육이 우위적인 자리를 잡고 있고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아래 중화인민공화국 초기에 소련식 모델을 따르다가 현재는 소련식 모델의 토대아래 유럽과 미국식 모델이 자리 잡고 있다. 내부적으로 서양식 교육을 비판하면서 이들의 모델을 견지해가는 것은 중국이 과거 폐쇄적인 체제에서 개방적인 체제로 많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선교활동의 특징은 기독교 전파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교육과 의료 사업을 통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유교중심 국가로 한국과 중국이 기존의 전통사상에 새로운 종교나 학문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근거로 방안을 모색한 결과이다. 전통을 고집하기는 쉬워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중국은 선교사들이 직접적인 전도를 위해 진출하고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을 통해 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선교사들은 선교를 위해서 오긴 했지만 서학을 전하는 가교역할을 하여 한국과 중국의 근대학문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한국에서 미선계 학교는 민족교육의 온상으로서 일제의 탄압을 받기도 하였

50) 王麗紅, 周廣(2010), <略論西方傳教士在 傳播中西文化的作用>, 《白城師範學院學報》第4期, 29쪽.

지만, 토착화의 과정을 겪고 안착하였다. 반면, 중국에서는 정치적 이유 특히 1949년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선교사들은 중국을 떠나고 미션계 학교는 몰수되어 폐교되었다. 서로 출발은 비슷했지만, 결과와 영향에서 한국과 중국의 미션계 학교의 노선은 달랐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에서 미션계 학교는 전통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 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미션계 학교가 한국과 중국에 미친 영향과 성격을 살펴보면, 같은 점도 존재하지만 다른 점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것을 분석해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고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더 나아가 중국의 교육을 이해하고, 한국이 처한 객관적 교육 상황도 가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의 FTA의 교육문제분야에서도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 강재연, 이규수 옮김(1999), 《서양과 조선》, 서울: 학고재.
- 공보길(2000), <미국의 초기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활동에 대한 연구 -알렌과 언더우드 를 중심으로->, 《명지사론》 12권.
- 김기민·유재봉(1991), <개화기 기독교 학교의 교육사적 의의>, 《창원대논문집》 13.
- 김기석·유장란(1994), <한국 근대교육의 기원 1880-1895>, 《교육이론》 7, 8권 제 1호.
- 김두정(1998), <한말 개화기의 학교 교육과정: 변화, 배경, 현대 교육적 시사점>, 《教育發展論叢》 19권.
- 김득용(1968), <한국 근대 사회와 기독교 교육의 영향>, 《신학지남》 140호.
- 김성은(2010), <미국계 선교사와 일본 근대 지식인의 긴장관계 -미션스쿨 교육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學》 第50輯.
- 김영한(1998), <숭실의 1세기와 2세기>, 《기독교와 한국사회》 6권.

- 류방란(1998). <개화기 배재학당의 교육과정 운영>, 《教育史學研究》 第8輯.
- 박연호·김근영(2015). <기독교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 1884-1905>, 《教育史學研究》 제25집 제2호.
- 박의수 외(2009).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 백종구(2010). <한글 보급과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1603-1910)>, 《성결교회와 신학》 24권.
- 변창욱(2015). <내한 선교사의 교육선교(1884-1940): 한국교회의 교육선교에 주는 선교적 함의>, 《선교와 신학》 36집.
- 손인수(1998). 《한국교육사》, 서울: 문음사.
- 숭실대학교 100년사 편찬위원회(1997). 《숭실대학교 100년사 제1권》, 서울: 숭실대학교.
- 辛勝夏(2004a). 《근대중국: 개혁과 혁명(상)》, 서울: 大明出版社.
- 辛勝夏(2004b). 《근대중국: 개혁과 혁명(하)》, 서울: 大明出版社.
- 신용하(1973). <우리 나라 최초의 근대학교>, 《문학과 지성》 제5권 제1호.
- 아세아 문화사(1977). 《한국개화기 교과서 총서 1-20권》, 1977.
- 이경자(2014). <중국 미션계 학교의 발전 과정>, 《中國學論叢》 第45輯.
- 이성전,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미국 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만규(2010). 《다시 읽는 조선교육사》, 서울: 살림터.
- 李萬烈(1993). 《韓國基督教와 歷史意識》, 서울: 지식산업사.
- 이만열(2009). 《한국독립운동의 연표》, 서울: 경인문화사.
- 이만열(2013). <한글어 성경 번역의 초기 역사와 한국 교회>, 《長老教會와 神學》 10.
- 한국 기독교여성 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 여성분과 편(1985). 《여성, 깰지어라, 일어나라, 노래할지어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함종규(1978). <한국 근대학교의 성립과 교육과정 -갑오개혁에서 을사조약까지->, 《숙명여대 논문집》 1978.
- 古川 昭著 李成鈺 譯(2006). 《구한말 근대학교의 형성》, 서울: 景仁文化社.
- 顧瑩惠(1994). <教會學校與中國近代教育>, 《蘇州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2期.
- 顧長聲(2013). 《傳教士與近代中國》.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潘懋元 主編(2005). 《中國高等教育百年》. 廣州: 廣東高等教育出版社.
- 劉紹春(2015). 《晚清科舉制的廢除新教育的興起》,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熊明安主編(1999),《中國近現代教育改革史》,重慶:重慶出版社。
- 熊明安 熊焱(2013),《中國古代教學活動簡史》,重慶:重慶出版社。
- 段義權(1994),〈1840-1899年:傳教士對中國近代教育的影響〉,《山西高等學校社會科學學報》第4期。
- 王人博(2015),《中國的近代性(1840-1919)》,廣西:廣西師範大學出版社。
- 王紅信(2001),〈簡論中國近代教會學校〉,《邢台師範高專學報》第4期。
- 張桂霞,〈論近代西方傳教士在華辦學〉,《忻州師範學院學報》3期,2009。
- 張永廣(2012),《近代中日基督教教育比較研究(1860-1950)》,上海:上海社會科學出版社。
- 趙啓重(1995),〈教會學校在中國近代教育史上的地位〉,《松遼學刊》(社會科學版)第2期。
- 周洪宇,陳竟蓉 主編(2013),《舊教育與新教育的差異-孟祿在華演講錄》,合肥:安徽教育出版社。
- 제임스 허틀리 그레이슨 지음, 강돈구 옮김(1995),《한국종교사》,서울:민족사。
- 肖安平(2011),《中國基督教與中國文化》,北京:宗教文化出版社。
- 佟洵(1999),《基督教與北京教堂文化》,北京:中央民族大學出版社。
- 何建明(2011),《近代中國宗教文化史研究(上)》,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mission schools on China and Korea on modern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reason for China and Korea to accept the mission schools and the activities of mission school for modernization are examined in this paper. Confucian-oriented education has long been a main stream of education of China and Korea. However, traditional education that was done so long a time was replaced by western studies after China and Korea began to come into contact with Western culture in earnest around the Opium War of China and Japan-Korea Treaty of 1876 (Ganghwa Treaty) of Korea. After mission school was accepted for reasons of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saving the country

against invasion of Western powers and alternatives to traditional education, missionary school contributed to lead the changes the introduction of studies and culture of the West and made for supply of the Mother tongue through Bible Translation.

The mission schools on China and Korea have the common places in the establishment of modern studies, dissemination of the Mother tongue through Bible Translation, the efforts to save the country in the difficult situation. In Korea, mission schools were successful on indigenization even through mission schools awarded the oppression of the Japanese as a hotbed of ethnic-based schoo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mission schools in China walk the other way than South Korea. In particular, after in 1949 the Socialist People's Republic of China erected and the missionaries left China, the mission schools in China were confiscated, merged elsewhere or closed down.

Missionary schools which were selected for the method of mission played a role as a bridge to transition from traditional education to modern education. The study on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of impacts and characters on modern education of the mission schools of China and Korea w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modern education of China and Korea.

Key words: mission school, modern education, china education, korea education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6. 5. 15.	2016. 5. 31.	2016. 6. 3.	2016. 6. 17.	2016. 6. 30.